



표현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 “에이즈를 생각하고, 예방하고, 이겨내자!”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 에이즈 관련 단체 등은 '에이즈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전세계에 촉구했다. 특히 올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질병 에이즈가 발견된 지 꼭 20년째 되는 해여서 에이즈 퇴치 활동가들의 각오가 남달랐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권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열성적인 에이즈 퇴치, 예방 행사를 벌였다.

WHO의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사무총장은 에이즈의 날 성명에서 세계는 에이즈의 확산을 중단시킬 준비가 되었지만 그 투쟁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일 년 간 각국의 지도자들이 에이즈 퇴치를 위해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온 점에 주목한다”며 “항 레트로바

이러스체 등 HIV(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약이 여전히 비싸고 저개발국에는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브룬트란트 총장은 특히 공공,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세계 에이즈 퇴치기금이 마련된 점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수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디 위원장은 EU가 전세계에서 진행될 에이즈와 전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U는 지난 98년부터 이미 1억3천만 유로의 자금을 에이즈 퇴치에 지원해왔다.



세계에이즈의 날 카라카스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인들의 행진. 베네수엘라에는 40여만 명의 HIV 양성 반응자가 있다.

11월 26일 캘커타의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 캠페인에서 인도의 매춘부들이 레드리본을 나누어주고 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브라질의 운동가. 중남미에는 180여명의 감염인이 살고 있다.

전 남아공 대통령인 만델라가 케이프타운 근처의 마을의 감염 어린이들을 방문했다. 12월 3일.

에이즈에 감염된 생후 6개월 이기가 나이로비의 새로운 가정에서 상택거 호전되고 있다.

세계에서 에이즈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 수단 등에서는 국민에게 에이즈에 대해 알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에이즈 감염자가 470만 명이나 되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에이즈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며 젊은이들에게 에이즈에 대해 맞서 싸우는 데 더욱 노력할 것과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종교지도자들과 노동조합 운동가, 에이즈 운동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에이즈 마크 알기 행사를 갖고 에이즈에 대해 국가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루 300여 명이 에이즈로 목숨을 잃고 있는 짐바브웨에서는 수백명이 수도 하라레 거리에서 에이즈 퇴치 행진을 벌였고 안전한 성생활을 홍보하는 행사도 열렸으며 수단 정부도 대규모의 에이즈 캠페인을 시작했다.

### >> 다채로운 모습으로 에이즈 경각심 촉구

아시아 각국에서도 에이즈의 날 행사가 열렸다. 홍콩에서는 수천 명의 에이즈퇴치단체 회원들이 거리로 불려나와 수백만 명의 아시아인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며 각국 정부기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중국에서는 방송사상 처음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의 에이즈 감염자는 60만명(2000년 말 현재)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하이(上海)의 올해 감염자가 45% 증가하는 등 급속히 늘고 있다.

한국과 인도,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도 퍼레이드와 기금 모금 행사 등이 열렸다. 서울에서는 에이즈 운동가 등 2천여 명이 에이즈 예방법을 알리는 인쇄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했으며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콘돔 분장을 하거나 콘돔 수십 개를 붙인 차방이 거리행진을 벌여 눈길을 끌었고 캄보디아에는 콘돔 카페가 첫 선을 보였다.

아시아·태평양 20개국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연민을 담은 풍선 5만개가 공중으로 날아간 가운데 중국은 에이즈를 주제로 한 TV프로그램을 최초로 방영했다. 이밖에 일본과 호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대양주 각국에서 다채로운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날 바티칸 연설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위로하고 의학 연구자들에게 치료법 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성명에서 "에이즈와 싸우는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 발췌)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에이즈에 저항하여 다함께..."라고 씌어진 깃발위에 있는 Ferris wheel을 장식하고 있는 파리 콩코드 광장의 래드리본.

HIV 감염자인 Sarah Hialeke가 4개 월 된 아기를 안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는 세계에이즈의 날 추사에 HIV/AIDS 확산에 대한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계에이즈의 날 베트남의 에이즈 운동가들이 사이클로스를 타고 하노이 시를 돌며 사람들에게 콘돔과 팜플렛을 뿌리고 있다.

11월 30일 리우데 자네이로의 세계에이즈의 날 준비 행진동안 브라질의 에이즈 운동가가 휘슬을 불고 있다.